



기업대표 3명, 전주교대에 발전기금 기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3명의 기업대표로부터 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받아 대학 총장실에서 발전 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주)포이닉스 김복례 대표, (유)도형 황순자 대표, (유)동진 단열 백경지 대표는 각각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하였다. 각 대표는 "전주교육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훌륭한 예비 교육자들이 꿈과 포부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호텔게스트 현장 체험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이 지난 13~14일 1박2일 간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 & 서비스즈 레지던스에서 '호텔게스트'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호텔게스트' 체험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가 호텔리어를 꿈꾸는 신입생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 그룹의 호텔에 숙박하면서 최고의 숙박시설과 호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호텔 시설 견학에 호텔 프런트와 객실부, F&B 등 호텔 주요 부서 업무 소개는 물론 조민국 호텔 총지배인으로부터 성공한 호텔리어 특강도 경험했다. 호텔 객실 체험은 물론 뷔페로 준비되는 식사 등 호텔에서 서의 모든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현장 경험으로 남았다. /장은성 기자



장수경찰서-장수우체국, 치안협력 업무협약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가 지난 14일 장수우체국과 공동체 치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과 우체국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능동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장수군민이 모두 행복한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사칭 및 무료쿠폰제공, 모바일정찰장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신종 문자금융사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등 범죄예방 홍보물을 우체국 차량에 부착, 집배원 교통안전 교육 정기적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홍훈 서장은 "이번 협약에 흔쾌히 응하여준 장수우체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앞으로 장수경찰서는 더 많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수군의 두루두루 살림 치안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곽관호 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 가정의 달 맞이 특화사업 추진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강인)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 5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이 속~ 영양이 속~' 특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맞아 추진된 특화사업은 가족의 부재, 경제적 결핍 등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고립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1인 가구, 한부모, 조손가정에 협의체 위원들이 손수 만든 4종 밀반찬 세트(돼지불고기, 멸치볶음, 열감이지킴, 양파장아찌)와 생필품을 전달해 따뜻한 정과 희망으로 특별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김제=곽관호 기자

역사 속 묻혀있던 근현대 과학자 조명

전북대 김근배 교수팀,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 책 출간

전북대학교 김근배 교수(자연대 과학학과) 등 연구진들이 최근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김 교수팀의 연구진이 15년에 걸친 아카이브 작업을 바탕으로 총 6권으로 기획된 '한국 과학기술 인 물열전' 시리즈의 첫 성과물로, 역사 속에 묻혀 있던 근현대 한국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그들의 삶과 자취를 추적한 책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근현대 한국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고, 그들의 이름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시기 인물의 삶은 친일과 독립운동, 좌파와 우파라는 정치적 관점에서만 주로 논의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 책 출간의 의미가 더욱 소중한 이유다.

이 책을 통해 발굴된 근현대 과학기술인은 모두 30명이다. 한국의 첫 화학자로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만년필용 모란인크를 개발한 리용규(1881~미상), 세계 최초로 비타민E 결정체 추출에 성공해 한국인 처음으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김광하(1901~미상), 해방 직후 남대문 시장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미국수학회'에 실린 미해결 문제를 풀어 논문을 발표한 수화학자 리립학(1922~2005), 그리고 식민지 여성이라는 이중 차별을 극복하고 한국 여성 최초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아 노타리버섯 인공 재배에 성공한 김삼순(1909~2001)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탁월한 업적들이 감동적인 서사로 적혔다.

이 밖에도 두만강 유역의 모래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해 동아시아에는 다이아몬드가 없다는 통념을 뒤집은 지질학자 박동길, 일본에 양자화학을 처음 도입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리-아이팅 이론을 남긴 세계적 화학자 이태규, 한국인 집단 유전학 연구로 일찍이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잇달아 논문을 발표한 강영선 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활동한 한국의 선구적인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다.

나비 박사로 알려진 석주명,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 물리학부장을 지내며 '노벨상 메이커'로 불린 이희소 등 한 번쯤 이름은 들어 봤지만 제대로 볼랐던 인물들의 진면목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는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업적뿐 아니라 암울했던 근현대사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굴곡진 삶도 담겼다. 그러한 이념 대립 하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월북하거나 납북됐고, 이태규와 같은 과학자는 미국으로 떠났다. 이어 활발한 전쟁과 증폭된 이념 갈등은 여러 과학자의 목숨까지 앗아갔고, 그나마 남은 과학자들



1930년대 후반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많은 동식물의 우리말 이름이 지어졌으며, 1933년 찰스 다윈 사망 50주년을 즈음하여 그의 사망일인 4월 19일이 과학데이로 지정됐다. 한글날은 음력과 양력 울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등 복잡한 논의 끝에 10월 9일로 결정됐다. 해방 후 조선산학회의 시민식목등산회 개최는 1949년 식목일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1978년에는 식물학자 이민재와 이은상, 이승명이 초안을 작성한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됐다.

이 외에 여성사의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장면이 많다. 김삼순이 입학한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는 기존의 재학을 허용하지 않았고, 학생 신분으로 남자를 만나 것을 엄격히 규제하여 '50세 이하의 남성과는 나란히 걷지 말 것'이라는 내부 지침까지 있었다. 석주명이 신여성인 김운옥과 이혼하면서 '시기와 의치치 못한 점, 단추 떨어트 와이셔츠를 함부로 내놓은 점' 등을 들자, 김운옥의 친구들이 '남성 중심의 전제주의자', '전상천하 유일독존'이라고 비난했다는 기사는 남녀평등 의식을 탑재한 신여성성과 전통적인 여성상에 머물러 있는 구시대적 제도와 남성이 감동하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이 책에서 언급된 30인의 과학자 중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과 관련된 과학자도 3명이나 조명되고 있다. 전주 사범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뛰어난 생물학자로 양성한 입지전적인 어류생태학자 최기철(서울대)과 군산 태생으로 군산고를 졸업하고 4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논문왕' 수학자 박세희(서울대), 전주북중과 전주고를 나와 서울대를 전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노벨 과학상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화학자 심상철(카이스트) 등이다.

한편 집필에는 전북대 김근배 교수와 공동 편자자인 이은경, 선유정 교수를 비롯해 근현대 시기를 연구하는 10여 명의 과학사학자가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무주소방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시설이며 세대·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며,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화재 안전취약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화재 없는 마을 신규 조성 및 사후 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은 소방시설의 구매 및 상담·설치까지 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는 무주소방서(063-780-3243)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

남원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음성 통화 외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신고자는 영상 통화를 물론, 문자(SMS, MMS)나 스마트폰 앱(APP), 웹(Web)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으며,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보다 정확히 사고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앱을 활용해 신고했을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산악이나 해상사고에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119로 영상통화로 발신하면 119종합상황실에 연결돼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전달이 가능하며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신고자도 쉽게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철성 대응예방과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전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서, 치안고객만족도 향상방안 보고대회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 14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무과장 및 계·팀장, 성과담당 직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고객만족도 향상방안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2024년 1분기 치안고객만족도 결과분석 및 향후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치안고객만족도 기능별 분석 및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남기재 서장은 "처리절차 및 과정을 준수하고 민원인을 응대할 때 성실하고 청렴한 태도로 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서, 관리자 대상 성평등·성희롱 교육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 13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과출소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대상 성평등·성희롱 교육을 개최했다. 이 날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가인 봉귀숙 강사(사단법인 익산여성전화 상담원)가 교육을 진행,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해 성희롱·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빙고게임 및 사례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예방수칙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글로벌대학 본 지정 위해 지역 연계 최선

원광대, 개교 78주년 기념식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개교 78주년 기념식을 원광학원 오도철 상임이사와 박성태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2시 교내 숭산기념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15일 개교기념일에 앞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40년·30년·20년 연공상 및 공로상, 학술상을 비롯해 교육업적상, 강의우수상, 교수학습상 등을 시상하고, 학생 표창과 함께 김대중 도의원, 김삼곤 익산소방서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등 외부인사 23명에게 대학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해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시종 이사장은 오도철 상임이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원광학원은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지와 덕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빛나는 대한민국의 대표사학으로 성장했다"며 "온택트(online)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는 등 새로운 사회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가 이해하고 살아가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다졌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반으로 이제 생명 중심의 비전으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박성태 총장은 기념사에서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는 통합을 기반으로 혁신모델을 제안해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됐고, 이제는 본지정을 위해 '생명산업 연계 융합 교육', '생명산업 융합 밸리 구축',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등 3대 혁신 전략



을 구체화한 세부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이라는 비전이 대학과 지역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등교육 정책의 지방 분권화,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 강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농생명·바이오 분야 중심대학으로서 지역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특화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대학·공공기관·산업체 등 우리 지역의 모든 분야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오늘보다 더욱 큰 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46년 유일학립으로 시작해 1971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오늘에 이른 원광대는 지난 2022년 제14대 박성태 총장 취임 이래 글로벌대학 및 개교 100년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branche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인후지사, 인후지사, 김제지사, 진안지사, 삼천지사, 송천지사, 남원지사, 정읍지사,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정수지사,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부안지사, 무주지사, 호지지사, 010-8645-9835, 익산지사,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